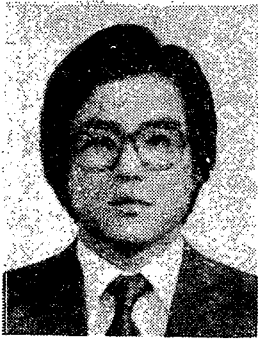




漢江과 미시시피江

漢江은 요즘 끊임없이 口舌數에 오르고 있다. 漢江의 어느 다리가 부실한 地盤위에 세워졌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또한 올림피 大橋의 건설이 風納土城을 해친다는 批判이 최근에 일고 있다. 작년 여름의 洪水에는 漢江의 治水문제가 또 한번 제기되었었고, 洪水의 責任을 두고 발생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은 현재 法院에 계류 중이다. 漢江을 되살리려면 천문학적 숫자의 投資가 필요하다는 政府機關의 報告書가 발표되었고 漢江綜合開發은 그런 중에도 계속되는 듯 하다. 여의도 샛강을 아예 없앤다고 하다가 이제는 반만 매립하기로 하여 工事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洪水피해를 막기 위하여 堤防의 絶반을 없앤다고 한다. 그리고 漢江에 유람선을 띄우기 위하여 潛水橋의 通行을 금지하고 工事を 하고 있으며 漢江의 다리와 江南路를 연결시키는 工事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漢江과 그 주위의 땅은 분명히 「酷使」당하고 있는 듯하다. 漢江이 살아있는 生物體라면 아마도 몸살로 이미 生命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漢江이 이처럼 「酷使」당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人口增加와 서울에로의 人口와 經濟力 集中과 같은 成長的 要因 때문이다. 그러나, 또하나 분명한 것은 漢江과 그 주변의 土地의 利用을 計劃하는 政策立案者의 短見이 결국에는 漢江을 필요이상으로 「酷使」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 지적할 것은 도대체 서울市民의 生活과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는 漢江 流域의 開發에 一般市民의 民意가 事前에 反映된 적이 있었나 하는 점이다. 行政節次制度가 도입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現實에서는 항상 모든 計劃은 政府 關係기관인 政策決定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되며 一般市民은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報道 기관의 報道에 의하여 政策決定者가 자발적으로



李 相 敦

〈中央大 法大助教授·法博〉



그 決定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것은 다만 흔치 않은 예외일 것이다.

行政節次란 主務行政廳이 어떠한 計劃이나 決定을 내릴 때 그 計劃을 事前에 告示하고 그에 대한 利害關係人이 意見을 提出할 기회를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聽聞會를 개최하도록 하는 制度로 行政廳의 政策決定에 民意가 反映되도록 하는 制度的 장치로써 美國과 西獨과 같은 先進法治國家에 그 훌륭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

漢江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 하기로 한다. 漢江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문제」일 것이며 어느 누구도 시원한 答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大西洋을 건너서 美國의 미시시피江으로 화제를 옮기기로 하자.

筆者는 美國留學 기간의 대부분을 미시시피江의 하류에 위치한 뉴·올린즈市에서 보냈다. 테너시·윌리엄스의 小説, 「欲望이란 이름의 電車」와 年前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었던 映畫 「캣·피플」의 무대인 뉴·올린즈市에 있어서 미시시피江은 生命線이다.

뉴·올린즈市는 미시시피江이 멕시코灣으로 흘러들어 가는 河口로서, 都市의 經濟는 海運活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뉴·올린즈市는 미시시피江의 兩岸에서 성장한 都市인 셈이다. 미시시피江의 놀라운 점은 江의 폭이 생각보다 좁다는 점이다. 그러나, 江의 水深은 깊어서 수만 톤級の 貨物선이 수시로 왕래하고 있으며, 江의 兩岸은 거의 전부가 荷物 부두로 그 物動量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뉴·올린즈지역의 미시시피江은 북쪽으로부터 흐르는 동안에 각종 폐기물을 모두 싣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의 색깔은 진한 흙색이다. 실상가상으로 뉴·올린즈市의 바로 북쪽에는 대단위의 化學工團이 자리잡고 있어서 化學物質이 섞인 廢水를 放出하고 있다. 그러나 뉴·올린즈市는 미시시피江을 上水道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對策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都市의 下水는 또다시 處理過程을 거쳐서 미시시피江으로 다시 흘러들어 가고 있다. 昨年에 뉴·올린즈市에서 열렸던 「World

Fair '84」의 주제가 「水資源」이었던 것은 이러한 背景下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뉴·올린즈市의 住民 사이에는 直腸癌의 이환율이 매우 높다. 이는 汚染된 上水道源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秘密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다. 북쪽 山間地帶의 地下水가 어느 슈퍼·마켓에도 있었으며 극빈층이 아니면 모두 이를 사먹고 있었다. 留學生이었던 筆者도 1갈론에 70센트정도하는 이 물을 사먹었는데 물값에 조금만 더 보태면 콜라나 맥주를 살 수 있는 것이 항상 애석했다.

뉴·올린즈市에는 미시시피江을 건너는 다리가 단 2個 뿐이다. 이들 다리는 水面에 높히 위치하고 있어서 처음에 운전하고 건너 갈 때는 마치 하늘을 가로 지르는 기분이 들었다. 大型貨物船이 다리 아래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토록 높이 건설된 것이다. 두개의 다리는 都心을 지나가는 高速道路와 연결이 잘 되어서 車는 많아도 소통은 원활하였다. 세번째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聽聞會가 수차 열렸었는데 그 결과는 보지 못하고 筆者는 귀국하였다.

뉴·올린즈市에 있어서 미시시피江은 중요한 觀光資源이기도 하다. 뉴·올린즈市의 다운타운은 이른바 「프렌치·쿼터」로서 200년이상된 建築物이 잘 保存되어 있으며, 이 特異한 地區를 구경하러 全世界에서 觀光객이 몰려 드는데 美國 제7대 大統領 앤드류·잭슨의 銅象이 있는 잭슨廣場에서 「프렌치·쿼터」는 끝나고 미시시피江의 부두가 나온다. 이곳에서 미시시피江 유람선이 출발한다. 가장 유명한 유람선은 「나체스」號로 양쪽에 큰 바퀴가 돌아가는 바로 18세기風의 유람선이다. 「나체스」호는 江가운데 정박중인 貨物船을 비껴가면서 美英戰爭의 격전지와 유서깊은 플란베이션·하우스를 거쳐서 돌아오는데 배위에서는 짜즈를 들으면서 뉴·올린즈風의 샌드위치로 요기를 할 수도 있다. 미시시피江은 뉴·올린즈市의 象徴이고 또한 生命인 셈이다. 아마도 모든 觀光客은 미시시피江의 유람선을 타고서야 뉴·올린즈市를 떠났을 것이다.

200년 이상된 古風의 建築物이 잘 保存된 「프렌치·쿼터」와 1812년의 美英戰爭 당시의 戰爭遺物이 잘 保存된 戰蹟地, 그리고 마치 마크·트웨인의 小說 속에 들어 온 듯한 기분을 주는 古風의 유람선 「나체스」... 이것이 바로 觀光資源으로의 미시시피江인 셈이다.

이 정도에서 다시 漢江으로 돌아오기로 하자. 漢江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政策인 듯하다. 이를 위하여 潛水橋를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니까. 그러나, 도대체 漢江에서 누가 어떤 종류의 유람선을 타고서 무엇을 관광한다는 것인지는 알길이 없다. 漢江上流에 댐이 많이 세워진 탓으로 漢江의 水深은 洪水時를 제외하고는 깊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크기의 유람선이 취역할 수 있을런지

는 이점에서 벌써 의문이다. 그리고 漢江 水面에서 보이는 江邊의 경치를 상상해 보자. 보이는 것은 無個性하게 서 있는 시멘트의 兎物, 즉, 아파트群일 것이다. 또한, 멀리 산중턱에까지 메우고 있는 不良住宅의 모습이고, 하늘은 온통 스모그로 흐려있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86과 88에 外國人 觀光客에 보여 줄 만한 서울의 모습인지를 反問하고 싶다.

漢江의 모습을 되찾고, 그것의 生命力을 회복시키는 것이야 말로 유람선 취역보다는 몇십배 급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民意가 수렴된 環境政策이야말로 또다른 施行錯誤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이며, 더 이상의 一方的이고 專橫적인 開發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環境保全상담안내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에서는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指導 및 啓蒙事業의 一環으로 「環境保全相談室」을 設置運營하고 있는바 本相談室에서는 政府施策弘報, 關係法令解説, 公害防止 關聯技術相談, 自家測定方法指導, 其他 建議 및 隘路問題相談등을 無料實施하고 있어 오니 많은 活用을 바랍니다.

상담실 전화번호 (753) 7640 (753) 7669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

● 투 고 안내 ●

會員 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각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 현황, 공지사항 그리고 제언이나 시·수필 등을 수시로 본 협회 홍보부(753-7669)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문으로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괄호내에 원어(한자 또는 영어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며 보내주신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